

주님의교회

함즐함울

PRESBYTERIAN CHURCH OF THE LORD WEEKLY

통권 제 127호 발행일 : 2005년 5월 8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롬 12:15)
2005년 교회표어 : 꿈을 꾸고 이상을 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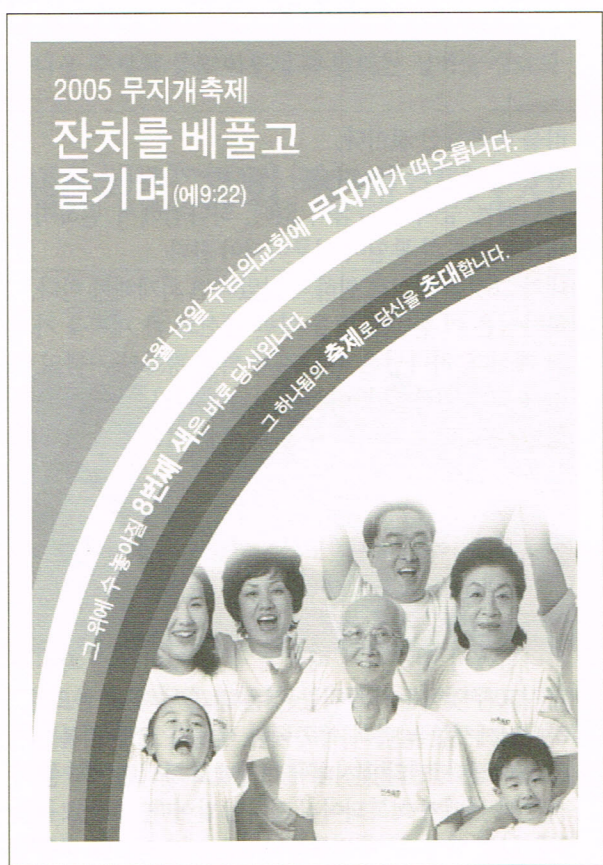
대한 예수교 장로회 주님의교회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50-4 (정신여중고 내) 02-416-5181 www.pcltv.org

기사제보 : 함즐함울 관련사항은 이창현 목사에게 문의바랍니다.

mobile: 011-466-4736 email: chhylee@korea.com

5월15일, 무지개축제 전체 4부로 계획되어 열려 다음 주일, 2005 무지개 축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주일예배는 1부예배와 연합예배로 두번 드리게 된다. 1부예배는 7시30분에 종전대로 드리고, 연합예배는 9시30분에 드리며, 3부예배와 청년예배, 영어예배는 따로 드리지 않고 연합예배로 드린다. 연합예배 시간에 초등학교까지는 교회학교 자체 예배를, 중학생 이상은 연합예배를 같이 드린다. 연합예배가 끝나는 10시30분부터 무지개축제 2부가 시작된다. (4면에 이어서)

두 번째 30CUP WORSHIP SERVICE가 열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며 초대 강사인 이용수 교수를 통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온 실패와 승리의 이야기들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30대 미/기혼 성도

들과 우리의 이웃들을 초대합니다. 오셔서 공감과 감동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일시 : 2005년 5월 22일 오후 5시30분

장소 : 지하 중예배실

강사 : 이용수 교수 (세종대, 현 KBS 축구 해설 위원, 주님의교회 집사)

* 탁아방을 운영하며 아이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제3회 무지개축제가 5월15일 다음 주일에 열리게 된다. 시편133편 1-3절 말씀을 따라 “주님의 가족”이란 주제로 열린 이 축제는 전교인이 한 자리에 참

여하여 잔치를 베풀고 즐기는 교회의 커다란 축제로 우리교회에 자리매김한지 올해로 벌써 세번째이다. 다음주일에 있을 무지개축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4부 전도예배, 5월 29일 첫 예배 시작돼



그 동안 6 개 월 여 에 걸쳐 연구 되고 준비 된 전도예배가 5월 29일 오후 2시에 대예배실에서

첫 예배를 드리게 된다. 전도예배 준비팀은 지난 학기 담임목사가 인도한 양육 클래스 과정에서 시작한 SEEKER SMALL GROUP을 통해 태동되었다. 전도예배 준비팀은 오랜 시간동안 매 주일 오후마다 모여 ‘어떻게하면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배를 통하여 전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해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며 고민해왔다. 이 전도예배의 사역원칙

은 교회를 다니지는 않지만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비교적 호의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눈높이로 바라보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모든 예배의 초점을 맞추고, 무엇보다 감동적인 예배를 추구한다. (3면에서 계속)

나눔의 물품, 특별한 요청 부탁해

매월 셋째 주일은 복지선교부에서 나눔의 물품을 받는 날이다. 현재 시급한 물품이 있어 성도들에게 부탁 드린다. 금산 공부방 및 마천동 무지개 동산에서 이동복, 동화책, 장난감 등의 필요를 부탁해왔고, 여주 희망의 집에서 무의탁 노인을 위한 의류 그리고 마천동 소망의 집 등에서도 장애아를 위한 물품을 긴급하게 기다리고 있다. 이러한 물품을 함께 나누고 싶은 교우들의 적극적이고 많은 참여를 기다린다. 나눔의 물품은 교회 1층 로비에서 받고 있다.

5월 15일, 제3회 무지개축제 열려 꿈과 이상을 보는 완두콩 Family



올해 무지개축제 2부 한가족의 장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행사 가운데 무지개 사진관을 개관한다. 작년 무지개축제 때 ‘밀림의 결혼식’을 테마로 열어 성도들의 뜨거운 환영을 받았던 사진관은 올해 안테르센의 동화 ‘완두콩’을 소재로 하여 새로운 감동을 함께 느껴보고자 한다. 꿈과 희망이 담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주님의 교회 가족들을 초청한다. 특히 올해 ‘꿈을 꾸고 이상을 보라’는 말씀과 함께 시작한 한 해의 중간쯤에 다시 한 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상과 소망을 온 가족이 함께 사진 속에서 기념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완두콩속의 가족이 되어 촬영하되 ‘어떤 완두콩이 될까를 꿈꾸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꿈과 이상 속에서 각자의 자리를 찾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리라 확신한다.

모새골 봉헌예배 드려



우리교회 전 담임목사였던 임영수 목사는 5월 6일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송학리 929번지에 4천40여 평을 매입 채플동, 세미나동, 관리동, 숙소동등과 목상의 동산을 건립하여 하나님께 봉헌 예배를 드렸다. 임영수 목사는 20여년전 부터 이 동산을 구

상하였으며 4년 전에 공사를 시작하여 모든 공사를 마치고 이제 또 하나의 새로운

시작을 한다고 말했다.

사단법인 모새골 공동체라 명명한 이 공동체는 순수히 후원으로 운영되며 아담하고 아름다운 이 처소는 청년중심의 목회자과정 영성교육을 집중교육 할 것이라고 했으며 금년 9월 1일부터 본격적인 영성교육이 이루어진다.

모새골 공동체에서 주님은 많은 주님의 제자들을 교육키시고 영성을 충만케 하여 우리나라 곳곳에 나아가 전도여행을 계속해 나가게 역사하심을 의심치 않는다.

우리교회에서는 담임목사를 비롯하여 부교역자와 당회원중 몇 명이 함께 봉헌 예배에 참석했다.

오늘 기도



주님...
제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함으로...

2009. 5. 8

특별 목요모임

“이 나라는 하나입니다”

한반도에 평화를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외쳐

5월 5일 어린이날 목요모임에는 특별한 강사를 초청했다. 바로 한국 예수전도단 창립자 오대원 목사이다.

시편 89편 11~12절 말씀과 예레미야 29장 11~14절 말씀을 함께 보며 한국의 상황과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대원 목사의 메시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한반도에 평화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주님의 생각을 나의 생각으로, 주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려야 한다.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보다 변화는 더 빨리 일어날 것이다.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교회를 통한 민족 부흥

의 역사가 시작된지 2007년이면 100년이 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참으로 안과 밖으로부터 고난을 많이 당한 한반도가 다시금 성령님의 커다란 불의 역사 속에 깊이 잠길때가 되었다.

주님을 전심으로 구하는 것은 헌신으로 '이 몸은 당신의 것입니다. 이 몸을 당신께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고, '원하시면 보내주십시오. 원하시는 대로 보내주시옵소서' 라고 진실되게 고백할 때 이 나라의 여러 문제가 순조롭게 해결될 것이다.

알바니아 출신인 마더 테레사는 인도라는 땅으로 부름을 받고 나이 들어 은퇴한 지 한 달이 안 되었을 때 알바니아 정부는 종교의 자유를 선포했다.

한 젊은 자매가 인도로 가서 철저하게 헌신하자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쁘게 여기시어 그 테레사 수녀의 나

라를 축복하신 것이다.

한반도, 대한민국은 하나다. 우리가 기도하면 된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한반도의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내가 그것을 진실로 원하지 않았다면 회개해야 한다.

하나님은 이 한반도 땅을 향한 당신의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이 나라가 의와 평화와 기쁨의 나라가 되길 원하신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세 가지 특징이기도 하다. 용서와 부흥을 위한 기도를 시작하자. 부흥은 언제 어디서 올런지 모른다.

그러나 바로 나 자신부터 부흥의 큰 불길은 시작된다.

이 목요모임이 바로 한반도의 구원과 부흥을 위해 만들어졌는지 우리는 그 뜻을 잘 알 수 없다.

한반도 통일을 위한 기도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받게 될 것을 믿으라.

하나님께서 남쪽과 북쪽에서 예배가 모두 회복되기를 원하신다. 엘리야 시대에 이세벨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아 예배가 회복되었던 것처럼 말이다.

5월 12일 다음 주 특별목요모임은 예수전도단 본부장 김지태 간사가 말씀을 전하게 된다.

안수집사회 총회소식

지난 주일(5월1일)13:00시에 4층 소회의실에서 안수집사회 총회가 열렸다. 김창안 집사의 기도 후 기간 중 활동에 대한 경과보고와 회계보고가 있었다. 토의된 내용은 직분자로서 적극적으로 교회봉사를 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안 모색과 예산에 관한건, 선교와 구제에 관한건, 교회의 사역에 관한건들이었다. 이날 차기 회장의 선출이 있었는데 차기 회장에는 순서에 의해 이종석 집사가 피선되었다. 신임 이종석회장은 봉사는 무엇보다 적극적으로 모든 일에 참여하는 것임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심을 강조했다. 질서를 지키는 안수집사회의 비전과 목표는 회원들이 함께함으로 구체적으로 만들어감을 강조하고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주님의교회 안수집사는 현재 54명, 올해 피택자는 7명이다.

유아세례식, 5월 4일 수요일에 열려



유아세례식이 지난 수요일 수요일성경공부 시간에 있었다. 총 15명의 아이들이 유아세례를 받았다. 유아세례 교육은 4월 10일부터 유아세례식까지 총 4주에 걸쳐 진행되었다. 그 동안 정희성 목사와 세례사역팀 그리고 영아부 교사들의 헌신적인 섬김으로 유아세례교육이 매주일 오후 1시 45분, 3층 초등부실에서 한 달동안 잘 진행되었었다. 그 결과 이제 어린이를 포함한 15명의 아이들이 주님의교회 유아세례교인이 되는 유아세례식이 진행되었다. 함께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세례를 받은 어린이들과 부모들을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축복해 주었다.

미술인 선교회 첫 모임 가져



미술인 선교회가 지난 5월 1일 1시 30분에 대화의 방(지하1층)에서 첫모임을 가졌다.

회화, 조형, 판화, 서예, 디자인, 디지털영상, 미디어아트, 전시기획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거나 관심이 있는 교우 18명이 참여하여 서로 소개하고, 선교회의 취지를 공유하였다. 이 모임은 하나님이 주신 미술 분야의 재능과 은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 안팎으로 활용하고 섬길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교회 밖의 미술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통로의 역할, 다른 사역분야와의 네트워크를 통한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앞으로 교우들

이 접하게 될 전시회 등이 기획될 예정이며, 무지개축제시에도 섬길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을 논의하였다. 미술인선교회를 섬길 임원으로 팀장대행: 박호길 장로, 총무: 박재현 집사, 부총무: 양재열 형제가 선출되었다. 모임에 참석한 교우명단은 다음과 같다. 강정임 공숙자, 박성희, 김운선, 노수연, 박귀희, 박호길, 양재열, 왕미자, 윤건숙, 이숙, 이선자, 이영미, 이영화, 이혜경, 정혜옥, 한창호, 허진(가나다 순).

5월 15일 제3회 무지개 축제 준비 회의 가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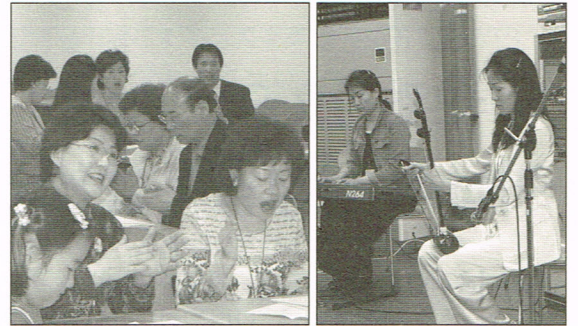


무지개 축제 준비위원회가 5월 1일 오후 대회의실에서 2시간여에 걸쳐 제3회 무지개축제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공리에 치르기 위해 빠짐없이 점검하고 담당자 간의 의견을 교환했다. 우리의 몫인 여덟 번째 색상을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아름다운 축제의 장을 이루게 해 달라는 성백술 장로의

기도와 김성관 목사, 이창현 목사의 사회로 준비, 진행, 협력, 안전 등의 모든 과정을 담당위원들의 적극적으로 협력아래 최상의 축제가 되도록 해달라는 당부와 기도를 함께 했다. 무지개축제가 드디어 다음주일에 시작된다. 모든 성도들은 오늘 예배때 안내되는 영상을 참고하고 함줄함줄을 참고하여 다음주일에 있을 무지개축제를 개인별, 구역별로 적극적으로 준비하여 참여해주기를 당부드린다.

1교구 모임 없는 구역 초청의 날 행사 가져

지난 5월 1일 주일 오후 5시에 교회식당에서 1교구 안에서 모임 없는 구역에 속해있는 식구들을 초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재 1교구에는 21구역이 있는데, 그중에서 6개의 구역에는 모임이 없는 상태이다. 그 6개 구역을 담당하고 있는 섬기미들과 교구 장로님들이 이 모임을 준비하였다. 전날 전화로 약속했을



때는 4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그날 여러 가지 사정으로 25명 정도의 식구들이 참석하였다. 맛있는 식사를 함께 하면서, 그동안 주일예배에만 교회에 참석하면서 가졌던 어려움들을 서로 나눌 수 있었다. 식사 후에는 유운정 자매(6구역)의 반주로 최남영 자매(18구역)의 해금연주를 함께 감상하기도 했다. “여기에 모인 우리”를 함께 부르면서, 앞으로도 좋은 만남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모임을 마쳤다. 앞으로도 교구와 구역 차원에서 “아무도 홀로 있지 않는 교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된 시간이었다.

제6여선교회 월례회 가져



제6여선교회 월례회가 5월 4일(수) 10시 30분 5층 청년부실에서 있었다. 담당 교역자인 나현수 전도사의 기타 반주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회원들 서로를 하나되게 하였다.

말씀은 롬 5:1~2, 롬 5:8 말씀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은 해안에 들어갔으니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서로 즐거워 하자는 내용을 전했다. 6여선교회 회원들의 연령대는 대부분 30대이다. 날씨가 화창하니 유모차에 아기를 태우고 온 회원, 아기를 품에안고 참석한 회원들도 있었다.

회원들은 서로 육아에 대한 정보와 일상생활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웃음꽃을 피웠다.

6여선교회는 5월 4일(월) 마천동에있는 ‘소망의 집’으로 봉사를 나간다. 6여선교회에 관심있는 성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

유치부 어린이 주일, 유아부와 함께 인형극 관람해



5월1일 유치부는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영락교회 대학부 인형극팀을 초청하여 ‘부자와 나사로’ 인형극을 보았다. 어렵게 초청한 인형극팀이어서 유아부와 함께 인형극을 관람하였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원래 ‘구제’에 관한 말씀이나 이날 인형극은 복음을 거부한 부자는 지옥에 가서 고통을 받게 되고 비록 가난하지만 예수님을 믿은 나사로를 하나님 나라에 가서 평안히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복음의 내용으로

각색된 것이었다. 어린이들 뿐 아니라 선생님들도 함께 웃으며 재미있게 인형극을 보았고 예배 후에는 어린이날 선물로 요요를 나누어 주었다.

요요를 가지고 노는 놀이 방법을 모르는 어린이들도 있었지만 선생님에게 요요 던지는 것을 배우며 모두들 즐거워했다. 부족하지만 유치부에서 섬기는 많은 선생님들의 관심과 사랑 속에서 어린이들이 더 밝고 건강한 예수님의 제자로 자라가기를 기도하는 시간이었다.



어와나 불티단의 조그마한 외침



한 주를 쉬고 난 후 보름 만에 어와나 친구들을 만나니 서로 너무 반가워 좋아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다소 어색해서 주

위를 땀도는 아이들도 있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게임시간에 들어와서는 언제 그랬느냐며 씩씩하고 활달해져 즐거워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영락없이 하나님이 좋아하실만한 모습 같다. 어와나 단복을 멋지게 입고 게임에 열중하여 참여하고, 말씀 암송시간에는 암송 구절을 줄줄이 암송하는 아이들과 말씀을 외우려고 눈동자가 허공을 바라보거나, 머리를 긁적이며 안간 힘을 쓰는 아이들의 얼굴을 바라보면 정말 깨물어 주고 싶도록 예쁜 모습들이다. 모든 시간을 마치고 어와나 교사들과 헤어지며 외치는 아이들의 외침 “내 친구를 그리스도에게로” 이 외침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의 친구가 됨을 깊이 확인하게 된다.

(1면에 이어서)

4부 전도예배, 5월 29일 첫 예배 시작돼

전도예배 사역의 핵심가치는 예수님을 전염시키고, 따뜻하게 환영하며, 친절히 환대하고, 감동을 주며, 탁월성을 추구하고, 일회적인 만남이 아닌 지속적인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고, 열정을 가지고 모두가 함께 한계가 없으신 성령의 역사하심에 동참하는 것이다.

전도예배 사역팀 안에는 안내팀과 교제나눔팀, 구역팀, 반송팀, 공간장식팀, 탁아양육팀,

중보기도팀, 소그룹 사랑방팀 등으로 세부적으로 나누어져 있다. 현재 계획은 5월 29일 주일예배부터 매주마다 전도예배를 드릴 계획이다. 이 예배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준비하는 사람들과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님의 충만한 기쁨부으심과 영적 감동을 위한 많은 성도들의 중보기도가 요청되며, 성도 개인과 구역, 그리고 이웃 차원에서 교회를 다니고 있지는 않지만 복음과 교회에 호의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 예배로 적극적으로 초청하는 적극적인 참여와 동참이 중요하다. 이 예배를 위해 성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동참을 기대한다

방과후학교 미술반수업 시간



지난 토요일(4월30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열리는 방과후학교의 미술반에서는 야외풍경그리

기 수업을 했다. 햇살이 좋은

오후, 학생들은 정신여고교정의 곳곳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나무와 건물과 꽃의 풍경을 그렸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자못 진지한 표정으로 자리를 떠날 줄 모르고 열심히 그리는 모습이었다. 스케치가 끝난 학생들은 콩테와 파스텔로 묘사를 시작했다. 야외풍경그리기수업은 다음 주 토요일까지 계속될 것이다.

리더훈련 목요 오전반 소개

귀납적 성경공부와 소그룹인도법

리더훈련반은 양육 클래스 과정중 필수에 속하는 과정이다. 리더훈련 목요오전반은 우동윤 목사가 담당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는 주로, 구역을 비롯한 소그룹공동체, 사역그룹을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인도할 것인가? 어떻게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할 수 있을 것인가? 누군가를 양육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도 "제자를 삼으

라"는 주님의 부르심과 보내심 앞에 바르게 응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 과정에서 많은 유익한 정보와 훈련을 받게 된다. 본 과정은 교회공동체 안에서 양육사역과 소그룹 인도에 헌신하기 원하는 사람들, 기타 여러 모양의 사역의 장에서 리더십으로 섬길 사람을 세우기 위한 준비과정이다.

개인적으로는 큐티 훈련과 성경을 귀납적으로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법을 훈련하며, 다른 사람의 영적 성장을 도울 수 있는 방법과 소그룹 안에서 리더로서 섬기는 사역과 토의성경공부를 인도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도록 훈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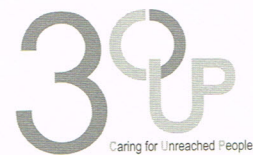
귀납적 성경공부란 관찰(본문에서 무엇을 보는가?), 해석(본문이 당시 저자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깨달음과 적용(본문이 오늘 나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의 과정을 통해 말씀의 가치를 인식하고, 독자적인 말씀연구의 자신감을 갖게 되며, 개인의 영적변화를 극대화하도록 하

는 것이다.

리더반은 보통 12명 이내의 소그룹으로 진행되며, 그 특성상 강의위주보다는 소그룹 나눔의 비중이 더 큰 편이다. 주중에는 성경묵상과 기록 적용, 추천도서읽기, 개인기도생활 등의 실천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삶의 양식을 형성하도록 한다.

리더반은 현재, 주일오후반(김성관목사)과 화요저녁반(윤은성목사), 목요오전반(우동윤목사)이 진행되고 있다. 목요오전반의 경우는 오전 10시부터 점심식사를 포함하여 오후 1시까지 클래스가 진행되고 있다.

30CUP 사역팀 모임



5월1일 소년부실에서 30CUP사역팀 모임을 가졌다. 팀에 새롭게 합류한 형제, 자매들과 서로를 소개하고,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통해 좀 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졌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은 사역팀원을 하나로 더 묶어주었으며, 힘들 때 함께 있어줄 친구가 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다. 또한 김현령 목사의 설교를 통해 삶의 원칙을 새롭게 결정하고, 헌신하는 시간이 되었다. 이 시간을 통해 사역팀원들은 자신들의 삶에서 기대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뿐 아니라 자신들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자고 다짐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팀원들의 삶을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다. 축복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삶이 30CUP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게 될 것을 기대한다.



중보기도로 섬기는 제5여선교회

제5여선교회 월례회가 3,4월에 이어 5월에도 11일(수) 오전 10시에 지하 영아부실에서 모이게 된다. 이 일금 집사를 회장으로 부회장 이형숙 집사, 총무 문순희 집사, 회계 권진영 집사, 서기 서경자 집사가 5여선교회를 섬기고 있다.

5여선교회는 오래전부터 중보기도를 주된 사역으로 실천해오고 있다. 교회 안과 밖,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 비록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모여 중보기도의 사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한 달에 한 번씩 김포에 있는 정신치체아를 위한 시설인 '샬롬의 집'에 방문하여 그들을 돕는 사역도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이 품고 계신 모든 계획과 사역에는 중보기도가 필수이다. 이러한 막중한 중보기도 사역에 동참하길 원하는 제5여선교회 회원들은 5월 11일 정기월례회에 함께 참여하여 주님의 마음을 같이 만지면서 기

도하기를 원한다. 새로운 회원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기다린다.

(1면에 이어서)

5월15일, 제3회 무지개축제 전체 4부로 계획되어 열려

2부는 먹거리마당, 놀이마당, 축제마당과 함께 구역별 식사가 동시에 진행된다. 먹거리마당에는 15종류의 먹거리시장이 열리는데, 500-2000원 상당이면 구입할 수 있다. 놀이 및 축제마당에서는 아이들과 어른들을 위한 놀이동산 및 추억의 코너가 마련될 것이다. 3부는 오후 1시부터 시작된다. 운동장에서 진행되는 데, 백색의 한마음팀과 적색의 한가족팀으로 나뉘어 전교인 운동회를 벌인다.

한마음팀에는 1,5,6교구가족, 중등부1/2, 고등부1/2, 청년부1/2 교우로 구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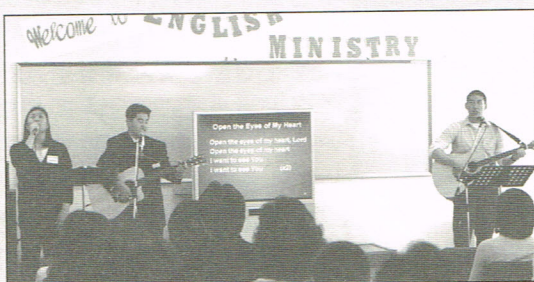
한가족팀은 2,3,4,7교구, 중등부1/2, 고등부1/2, 청년부1/2 교우로 구성된다.

이날 사회는 이재욱 전도사가 맡아 진행할 예정이다.

4부 한마음의 장은 3시30분에 다시 대예배실로 들어와 우리교회의 숨은 재능들과 끼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며, 아울러 감동의 장이 될 것이다.

무지개축제 당일에는 교정내로 차량은 들어올 수 없고, 종합운동장 주차장과 탄천주차장등을 이용해야 한다. 단 장애인교우차량은 진입이 가능하다. 무지개 축제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교회 안에 붙은 현수막과 계속 제공될 안내지와 간지를 참고하면 된다.

영어예배 사역팀 (영어약어 EM) 팀원 간증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온 교포입니다.

한국에 들어온 지 약 1년 됐습니다.

현재는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에서 한국말과 한국 문화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좋은 경험을 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주님의교회의 English Ministry (EM)를 찾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교회 오기 전에는 여기저기 다른 교회를 다니면서 별로 "Sense of Belonging"(소속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를 위해 적재적소에 때에 맞게 보내주시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언어교육원에 같이 다니는 친구를 통해 주님의교회의 Pastor Mike Ra (나현수 전도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계획은 제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의교회의 첫 주

일 예배에 참석한 날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때는 총 8명이 상당히 작은 교실에 모였습니다. 비록 작은 시작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이 축복하셔서 한 달 밖에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평균 50명 이상이나 모입니다. 게다가 전과 달리 이제는 더 큰 장소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영어예배를 통해 제가 누린 가장 큰 축복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EM으로 인해서 같이 믿는 사람들과 좋은 교제를 나누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더 깊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EM에서 작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마음은 정말 기쁩니다.

주님의교회 EM을 찾게 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김은수(JOHN KIM) 형제